



보도시점

2025. 1. 6.(월) 11:00

1. 7.(화) 조간

배포

2025. 1. 6.(월) 09:00

을사년 새해, 은퇴 검역탐지견과 함께 할 가족을 찾습니다

- 1월 한 달간 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은퇴 검역탐지견 8마리 입양 신청 접수
- 서류·현장 심사로 입양 가정 선정 및 입양 이후 정착 지원 적극 추진
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김정희, 이하 검역본부)는 전국 공항·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‘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’을 실시한다.

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,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(<http://qia.go.kr>)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.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.

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‘제2의 견생’을 보내고 있으며,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.

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*와 함께 2개월간(2~3월)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,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.

* 비글구조네트워크, 동물권행동 카라, 동물자유연대

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(SNS)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,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‘홈커밍 데이*’ 행사 개최, ‘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 입양 이후에도 새로운 집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* 홈커밍 데이: 검역 탐지 요원과의 만남, 전문가 교육 등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복지 행사

검역본부 김상경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“국가를 위한 헌신한 은퇴 검역
 탐지견이 새로운 가족과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
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말했다.

별첨 민간입양 포스터 및 리플릿

담당 부서	농림축산검역본부	책임자	과 장	안종현 (032-752-1275)
	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	담당자	팀 장	이준열 (032-752-038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